

2009. 11월
통권 199호

맛고 아름다운 사람들



신축건물 3층 만불전에 부처님을 모십니다.

인연따라 조성되는 만불 부처님

- 大佛 100만원 • 中佛 50만원 • 小佛 30만원

한 가정 한 불의 부처님을 모셔서 무량한 공덕의 인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발원으로 모시는 부처님

원 불 명	발 원	원 불 명	발 원
대일여래불	사업을 위하여	미륵불	내세를 위하여
비로자나불	수행을 위하여	관세음보살	고통자를 위하여
석가모니불	정진자를 위하여	문수보살	시험자를 위하여
약사여래불	병고자를 위하여	보현보살	보살행을 위하여
아미타불	부모를 위하여	지장보살	영가를 위하여

동참방법

- ▶ 한 불자님이 한 부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1인 1불)
- ▶ 동참금 납부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주십시오.
- ▶ 동참금은 분할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본당 삼천불전에 모셔진 원불을
새롭게 신축건물 3층 만불전으로 옮겨 모십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09. 11

통권 199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18 사찰순례

월출산 무위사

22 재미있는 불교설화

별거벗은 스님

26 알아봅시다

전통사찰의 건축양식

30 그곳에 가고싶다

세심마을

3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38 마음이 머무는 곳

역사 속의 여성열전

42 신간서적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담배 가게 성자

44 웰빙푸드

마 두부 찜
차조기 마 샐러드

46 만화 불교이야기

금강계단을 만든 자장율사

49 향초를 바치고 다기물을 올리는 마음

50 지상갤러리

푸른 잎의 싱그러움 즐기

52 부처님의 삼대선언

56 세무칼럼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58 법왕사 소식

62 법왕사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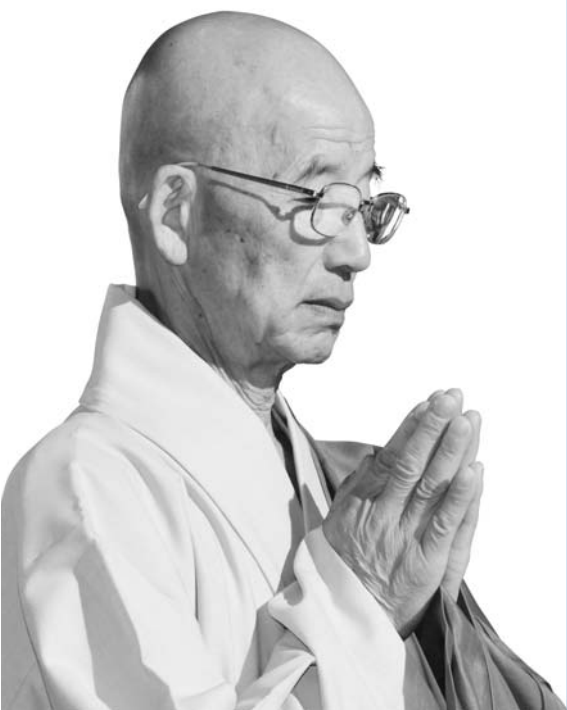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199호 불기 2553(2009)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주지 ·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효신, 영일, 묘도, 정명 취재기자 박학순 기획 · 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어머니요, 아버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 급고독원에서 큰 비구 삼만 팔천인 및 여러 보살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 때 세존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실 때에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셨다. 여래께서는 온 몸(五體)을 땅에 던지시어 마른 뼈를 향하여 예배를 올리셨다.

이를 보고 아난이 깜짝 놀라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의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하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 되었어도 안목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는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거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 부모은중경 —

가슴에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모은중경의 첫 대목을 읽을 때마다, 특히 맨 앞부분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re My Mother and My Father



Thus have I heard: Once, the Buddha was in the Garden of the Benefactor of Orphans and the Solitary, in Jeta Grove, in Shravasti, the capital of Kosala kingdom of ancient India with a grand assembly of thirty eight thousand Bhikshus, Bodhisattvas and Mahasattvas in all. At that time, the World-Honored One, leading a great assembly, walked directly toward the south and saw a pile of bones gathered on the side of the road. At that time, the Tathagata threw the five parts of his body to the ground in reverential obeisance to the withered bones. At this, Ananda was startled and addressed the Buddha saying, “World-Honored One, you are the great teacher of the triple realm, the compassionate father of the four kinds of birth, and the one whom the masses of people turn to in reverence. Under what causes and conditions do you pay reverential obeisance to these dried up bones?”

The Buddha told Ananda, “Although you and others are my chief disciples, having renounced the family life a long time ago, yet your knowledge of things is not comprehensive. This pile of withered bones could be the ancestors of my previous life or my parents of many past rebirths. It is under these causes and conditions that I now pay reverential obeisance.” (from the Sutra on the Profound Kindness of Parents)

Can’t you feel a moving thrill in your heart? Whenever I read the first part of this Sutra, especially the foremost part of this passage, I am moved to such an extent that I cannot express myself. Just imagine that the Buddha, the greatest One in the whole universe, the merciful Father of four kinds of life (i.e. egg-born, womb-born, wetness-born, or born of transformation), should pay homage with his utmost sincerity to the withered bones by the wayside! Like Ananda, all the people will react with surprise wondering why.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
사생(四生: 태로 낳는 것, 알로 낳는 것, 습기로 낳는 것, 천상세계의 천인들처럼 화하여 낳는 것)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길가의 마른 뼈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난존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궁금해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아난존자의 견해가 좁음을 꾸짖으시며, 한 무더기의 뼈가 전생의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전생에 부모 형제 아닌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나고 죽으며 윤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수많은 삶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생엔가는 다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의 이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내 부모 형제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듯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한때 내 부모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생에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어찌 괴롭힐 수 있으며, 어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 부모 형제 떼놓고 출가했다고 해서 불교를 효도와는 거리가 먼 종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불교는 세상에서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원수라도 자기 부모처럼 보라.” (원각경),

“보살은 중생을 마치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바라보니, 모두가 최상의 안락을 얻게 하고자 함이다.” (화엄경),

“설사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짊어지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짊어지고 천년을 지내면서 등 위에서 편안하게 모시더라도 부모의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다.” (부모은난보경),

“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사십이장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효도하신 덕분에 성불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Reprimanding Ananda's narrow view, the Buddha said that the pile of bones might be the one of his old ancestors and parents of his previous lives. Eventually, it is as much as to say that there is nobody in the world who were not our parents and brothers in our previous lives.

We continue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Through the cycle of countless birth and rebirth we encounter innumerable people. But the people we meet were surely our mother, father, brother, and sister in our certain former life. If we know this nature of transmigration, we should believe that all the living beings in the world were once our parents and brothers. So if we believe that all the people we meet were once our parents, how could we treat indiscreetly and unduly all those people we meet, how could we bother them, and how could we do harm to them?

At times some people say that Buddhism is far from the filial piety because monks enter the priesthood by leaving behind his family including parents and brothers and sisters. But if you have some knowledge of Buddhism, Buddhism must be the very religion that most emphasizes the filial piety.

Among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the Buddha said on the filial piety are included the followings:

“Even if they are your enemy, see them like your parents.”(from the Sutra of Complete Enlightenment)

“The reason Bodhisattvas see all the living beings equally like his only son is to make them all get the highest comfort.”(from the Avatamsaka Sutra)

“Even if you live a thousand years carrying your father on your right shoulder and your mother on your left shoulder giving them all the comforts, it is still short of repaying your parents for their favors.”(from the Sutra on the Difficulty in Repaying the Profound Kindness of Parents)

“Worshipping all the gods in the world is far less than being devoted to your parents. Your parents are really the highest god.”(from the Sutra in Forty-Two Sections)

In addition, the Buddha himself said that thanks to his filial piety he attained his Enlightenment. In relation to this, I will introduce a tale on the Buddha's former life

잠시 [잡보장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히말라야 산에 앵무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앵무새의 부모가 둘 다 장님인지라 앵무새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항상 먹음직스런 열매를 얻으면 앞 못 보는 부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밭을 지나는데 밭의 주인이 곡식을 심으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앵무새는 밭주인이 “이 밭에서 난 곡식은 중생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

는 것을 보고는 그 뒤로 스스럼없이 그 밭의 곡식을 몰어들다가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밭의 주인이 앵무새가 밭을 밟아 망가뜨리고 곡식을 함부로 몰어가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마침내 그물을 쳐서 앵무새를 사로잡았습니다.

앵무새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시하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곡식을 가져간 것인데 왜 나를 잡아가두는 것입니까?”

앵무새의 말을 듣고 밭의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곡식을 가져간 것인가?”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해서 제가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앵무새의 말을 듣고, 밭의 주인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부모를 위한 효심이 이렇게 지극한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앞으로는 언제든지 곡식을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길,

“앵무새는 나 여래이고, 밭의 주인은 사리불이며, 앞 못 보는 부모는 정반왕과 마야부인이다. 옛날에 앵무새로 태어났을 때 효성 지극하게 부모를 섬긴 공덕으로 이생에 성불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도나 일반 윤리 도덕적인 효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효도를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아니 본래 성불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이생에서만, 이생의 자기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의 부모님, 앞으로 만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 진정으로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부처님이 되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진리의 삶, 해탈 자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in the Sutra of the Repository of Sundry(Zabaozang 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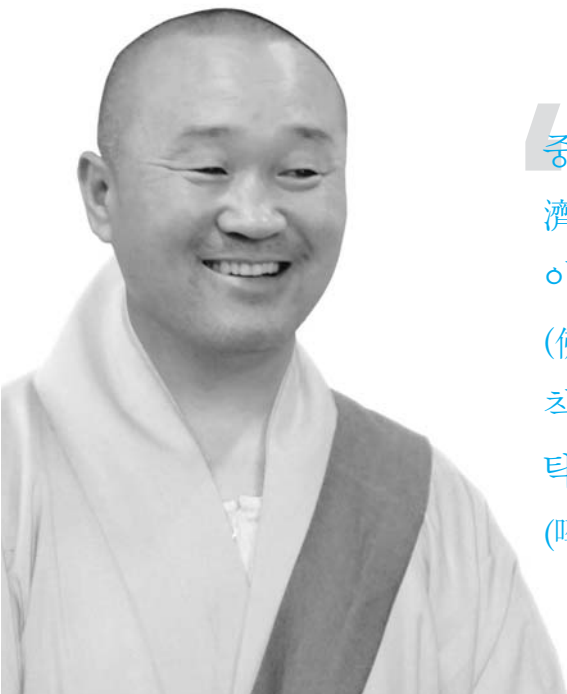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arrot in the Himalayas. Since the parrot's parents are both blind, the parrot served his parents from his early childhood. Every time he got appetizing fruits, he took them to his blind parents. One day when he was passing by a field, he saw the landowner sowing the seeds, praying to himself: "I will share all the crops produced in this field with living beings." Hearing the prayer, the parrot took the crops of the field to his parents without constraint. But a little later, the landowner got angry at the parrot because he saw the parrot taking away the crops destroying the field. Finally he set a net and caught the parrot alive. The parrot asked the landowner why he caught him alive because he had heard him praying that he would share the crops with living beings. Hearing the parrot's story, the landowner asked back, "To whom did you take the crops?" "Because my parents are blind, I am always serving them with food," replied the parrot. At this the owner of the field sighed exclaiming, "Even animals are devoting themselves to such an extent to their parents. But what about the humans? From now on you may take these crops anytime!"

The Buddha said to the Bhikshus, "The parrot was me Tathagata, the landowner was Sariputra, and the blind parents were King Shuddhodana and Queen Mahamaya. Due to the merit I had gained by serving my parents with my whole heart when I was born a parrot long ago, I attained my Enlightenment in this life."

As shown above, the filial piety Buddhism emphasiz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religions as well as the general ethical moral filial piety. The filial piety can lead you to Enlightenment. In fact the filial piety is to realize our innate Buddhahood. Therefore we should practice our filial piety not only to our present and past parents but also to our future parents. In other words, it is the teaching of Buddhism that we should serve all the people we meet in this world like our parents and repay our debts to them.

If we do practice our filial piety to our parents with such Buddha's teaching in mind, we can lead a life worthy of man. It will be a respected life, a successful life, and a happy life. Furthermore, we can be a Buddha and can lead a true life as a great free man enjoying the eternal liberation.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중국 송(宋)나라 때의 임제종(臨濟宗)의 공안집(公案集:화두집)이자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불서(佛書)인 『벽암록(碧巖錄)』 제16칙(則) 공안에 나오는 것으로 줄탁동시(啐啄同時) 혹은 줄탁동기(啐啄同機)라는 것이 있다.

어떤 스님이 경청 도부화상에게 물었다.

“학인이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톡 쏘아 주십시오.”

경청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스님이 말했다.

“살지 못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경청이 말했다.

“이런 건달 같은 놈.”

이 공안은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비유하여 사제지간의 중요성을 묘사한 이야기다.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어미닭은 달걀을 따뜻하게 품어야 하고 수시로 알의 위치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특히 어미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는 알을 품은지 21일쯤 되어 알 안의 배자가 충분히 자라 밖으로 나와도 될 때이다. 이때 알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 깨트리면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 닭도 함께 껍질을 깨뜨려 주어야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탄생(誕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어미닭이 알 안의 활동을 감지하고 알맞은 시간에 밖에서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줄탁은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生命體)로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껍질 안의 병아리가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껍질 바깥에 있는 어미닭이 시간을 잘못 맞추거나 노력이 부족하면 병아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달걀의 껍질을 경계로 병아리와 어미 닭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비유로 참다운 사제지간(師弟之間)의 관계를 말할 때 자주 인용하곤 한다.

이처럼 깨달음이란 스승과 제자가 더불어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가에서 줄탁이란 수행자의 근기가 무르익어 승승이 알맞은 때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우린 결코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끊임 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다. 결



국 이 세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타인의 관계, 즉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은 부부(夫婦), 자녀(子女)가 「줄탁동시」 할 때 이루어지고, 훌륭한 인제는 사제(師弟)가 「줄탁동시」의 노력을 할 때 탄생하며, 세계적인 기업은 노사(勞使)가 「줄탁동시」할 때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번영이나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에도 「줄탁동시」의 이치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할 때 성공과 발전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줄탁동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변화하기」이다.

어느 방송국의 로고송에 있듯이 세상의 이치는 “기쁨주고 사랑받는” 순서이지 “사랑받고 기쁨 주는”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상대로부터 화답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고뇌와 헌신이 듬뿍 담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뻐할 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청」이다.

어미닭이 아기 병아리가 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려면 또 어느 부위를 두드릴 것인지를 먼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병아리에게 필살의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함께 기쁨을 만들 수 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경청하지 않는 것은 받은 선물을 아무렇게나 뜯어 던져두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다시 선물을 주겠는가?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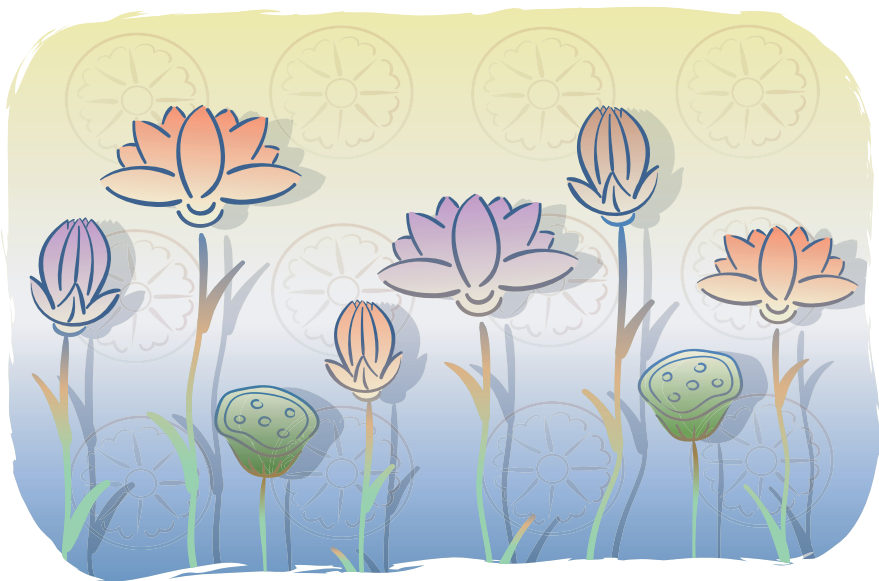
아무리 좋은 변화와 혁신이라도 상대방이 갈망하고 있는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일은 낭패를 본다. 다자라지도 못한 병아리에게 어미 닭이 탁을 하게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네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나의 노력이 항상 인정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의 안쪽을 쏘았다고 반드시 상대방이 바깥쪽에서 쏘아주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상대방의 묵묵부답으로 온갖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줄탁동시」의 묘는 기다림에 있다.

안과 밖, 명과 암, 나와 너, 이 두 가지가 만나 새로운 열정과 에너지를 창조하는 원리, 「줄탁동시」로 세상사는 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연기 법적 접근방식의 해석, 상대성 원리



사람은 몸과 말과 그리고 마음을 통해 행동한다. 충동과 감정, 욕망은 행위를 결정지으며,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곧 존재의 상태를 모양 지우는 작용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원인과 결과를 낳는 인(因)에 의한 과(果)의 상응 전개의 자연법칙으로, 그것은 그 자체대로 엄연한 법이어서 그것을 특별히 법으로 제정해 줄 별도의 초월적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선악 행위를 상별할 외부적 힘은 어디에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업(業)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행위에 따른 결과로 고통을 맛보거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역시 그 자신의 일이므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상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순간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바뀌는 유동적 구조이기에 이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만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는 이것은 저 ‘보편적 자연법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전통적인 업사상을 근거로 한 도덕률이 의미하는 영역 적용으로, 선악의 업이 누적되고 드리워짐은, 마치 밝음의 이쪽에서는 어둠의 저쪽은 보이질 않지만, 어둠의 저쪽에서는 밝음의 이쪽이 환히 보이는 것과도 같다. 날마다 바뀌는 밤과 낮은 어둠과 밝음으로 교차하면서 밝음이 드리난 현상이라면 어둠은 드리워진 현상으로 다만, 어둠에 의해 빛은 가리어졌을 뿐, 밤이 다하면 빛이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듯이, 끝없이 움직이며 동요하는 ‘심리적 의지’에 의한 선악의 행위를 따르는 길흉의 작용은, 흡사 그림자가 형상을 좇음 같고, 메아리가 소리를

따름과도 같으니 ‘의지라고 하는 정신적 행위’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이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며, 어떤 행동방식, 어떤 습관 또는 기질 상의 성향 같은 것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행위 이전에 의지의 심리적 동기가 선행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체의 행위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영겁(永劫)을 흐르며 펼쳐진 만상의 광대무변한 우주의 부분 질서이자 대자연의 법칙인 조화와 부조화 속에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씨뿌려 공을 들인 만큼, 씨는 발아되어 움이 트고 싹이 자라가지와 잎에 물이 오르고 꽃과 열매를 맺기까지는 성숙시키는 시간이 필요 하듯이, 의지가 가져온 행위는 선악에 관계없이 인연(因緣)이 만나 화합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뿌린 만큼 선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도덕적인 면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건전한 행위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행위자에게 복이 되는 행복의 요소를 가져다주는 반면, 불건전하고 도덕적으로 불량하며 남을 해치는 나쁜 행위는 끝내 근심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인과율(因果律)의 대원칙은 그렇다고 확실적인 일정한 양(量)과 그 시기며, 크기로 나뉘지는 배분방식으로서 미세한 업의 진행 과정을 알 수도 없거니와 낱알이 인지 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도 아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분량의 소금을 한 컵에는 물을 적게, 다른 한 컵에는 물을 가득 붓고 그 물 맛을 보면 짠맛의 농도가 각기 다르듯이, 같은 상황과 시기며 조건에서 지은 선악일지라도, 복잡다단하게 얹히고설키며 진행되는 업력(業力)의 전개방식은 개인마다 시차(時差)와 공간적 차이를 두고 한결같지 않으므로, 바르고 선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간에도, 부귀와 빈천, 행복과 불행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경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이론을 설명할 때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이 이른바 카오스(Chaos)법칙이다.

예컨대, ‘북경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이, 변화하는 상승기류의 작용으로 태평양 건너 뉴욕에선 견잡을 수 없는 태풍을 전이, 발전될 수 있다’ 함은, 최초엔 티끌 같은 미세한 움직임에서 발단된 입자(粒子)의 파동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점점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면서 부분이 아닌 전체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는 자연계의 특이한 현상의 변이(變異)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연계에 국한된 현상만이 아닌, 인간계 또한 보편적 적용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이건, 이전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가지는 개연성 이외의 다른 함수관계에서 얼마든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변수(變數)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변수는 현재와 미래에 있어 사람 개개인의 움직임인 동적인 기질(氣質)이 우선하며, 그 기질은

부분 내지는 포괄적 의미에서 다뤄지고 파악되어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일 뿐, 구체적 인 업의 진행과정과 현재 흐름이 방향이며, 좋고 나쁜 상태의 전개 등은 예측 불가능 한 일이다.

이것은 지식의 뒷에 간혀 안주하는 인간이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과학이 접근 한다고 해서 말끔히 풀어질 영역도 아니다. 부처님은 신(神)이 아니지만, 신조차 다르시는 대각(大覺)의 일체지자(一切智者)로서, 오직 그 분만이 확연히 설명 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혼재된 양상의 업의 진행과정을 두루 낚낚이 아실뿐이다.

물론 그 사람의 특징적 경향을 세세히 잘 알고 있다면 어떤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행동방식에 따라 선업 또는 악업이 얼마나 축적, 혹은 방출되며,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는 미세한 업의 파동이 일으키는 흐름의 진행은 예측마저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질에 의한 개성이란 매순간 바뀌는 유동적 무형으로서, 장소에 따라 때를 맞춰 반드시 그러하다는 절대의 방식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일정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는 그 물체의 질량, 운동방향,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미래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어렵사리 예측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이하의 미세한 입자, 아원자(亞原子)의 영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알 수가 없다”고 한 물리학자 하이젠베르그이 불확정성(不確定性) 원리가 뒷받침 하는 것으로, 원자 이하의 아원자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 방향,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자연의 법칙에서 우연 같은 것은 없으나 개개의 원자가 예측할 수 없는 파동을 하는 경우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행동·행위에 따라 알 수 없는 길흉화복이 얼마든지 작용하고, 의지적 뜻에 따라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조건 지워진 상응한 인과가 자기 몫으로 찾아오는 건 필연적인 일이다.

우리 내면에 깃든 불성(佛性)은 비육하건대, 흙 속 깊이 묻힌 고아물질에 함유된 빛나는 순금(純金) 성분과도 같은 것이다.

땅 속에 묻힌 광물질은 땀 흘리는 노력을 함으로써 캐낼 수 있고 금광에서 캐는 광물 질에는 순금만이 아니라, 아연, 구리, 납 등의 철 성분이 섞여 있으므로,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뜨거운 담금질을 거치면서 추출된 순금은 비로소 금세공의 연금술로 마침내 빛나는 보석, 금관(金冠)·금목걸이·금팔찌며 금반지 등이 빛어지듯이, 성인과 범부가 함께 동거하는 인간심성(心性)에 내재된 선·악의 요소 중 “지

순지고(至純至高)의 결정체, 불성을 드러내려면, 객관에 조달되어 잠시도 쉼 없이 마구 들쭉시고 헤매며 쏘다니는, 이 마음을 두고 마치, 야생적인 거친 소를 코뚜레에 꿰어 잡들이고 길들이듯이, 부단한 수행과 치열한 각고의 정진(精進)에 의해서만이, 드리워진 불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쇠를 다루는 장인이 쇠의 녹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없애듯이, 마음의 찌든 때를 벗기며 씻어주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중생은 무엇을 채우지 못하거나 차지하지 못해서, 사는 것이 힘겹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저녁 연기처럼 마침내 사라질 허상을 좇아 욕망을 채우려 하는, 어리석은 집착에 사로잡힌 허욕의 덫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범속한 일상을 살기 때문이다.

지혜·복덕 구족하신 부처님은 형상이 아닌 진리이다.

남극에 가 보지 않아도 남극이 그곳에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음을 영상을 비로한 글과 그림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알듯이, 형상을 빚어 모셔진 불상(佛像)은 사람마다 내면에는 그와 같이 자비로 충만한 거룩한 깨달음의 빛이 들어 있음을 눈 먼 중생에게 보이고자 상징함이다. 따라서 철불·목불·토불로 이루어진 1차원적인 형상의 불상을 두고서 만중생을 구제하고 이익 되도록 자비광명의 크나큰 위신력(威神力)을 지닌 4차원적 무량광(無量光) 부처님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자비 내면에 깃든 불성을 발현케 하는 불심으로서, 곧 법을 믿고 따르는 지극한 마음, 보시하는 베푸는 마음,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 하는 마음, 바르게 정진하는 마음, 중생을 어여뻐 생각하고 가엾어 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무욕의 마음, 텅 빈 무심의 마음인 것으로, 실로 그것이 불성청정의 자기 본래 면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물 고쳐 부처(깨달음) 이룬다 하였으니, 내 안에 본래로 간직한 찬란히 빛나는 신통광명이 내재해 있기에, 절대로 ‘마음 밖에서 법을 찾지 말라’고 지혜에 눈 뜬 선지식들이 간절히, 한결같이 이르신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이다.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이르시길,

“모든 중생들이 시초가 없는 과거부터 모든 빛과 소리를 따르고 그 생각을 좇아 흘러 돌아서 본성품의 청정하고 묘하고 항상함을 깨닫지 못하니, 그리하여 항상함을 따르지 않고 생하고 멸하는 것만 좇아다니면서 세세생생(世世生生)에 섞이고 물들어서 흘러 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생과 멸을 버리고 참되고 항상함을 지키면 항상한 광명이 앞에 나타나서 대경(對境)과 육근(六根)과 식심(識心)이 즉시에 없어지리라” 하셨다.

섬세하고 단아한 극락보전, 월출산 무위사

무위사는 월출산의 남쪽 기슭 성전면 월하리에 자리 잡은 고찰로 근처에 있는 월남사지와 함께 유서가 깊은 선종사찰이다. <무위사사적>에 따르면 무위사의 초창은 수양제 대업(隋煬帝 大業) 13년, 즉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가 관음사로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 승려 원효가 남의 나라인 백제 땅에 사찰을 창건했다는 것은 당시 양국간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도저히 믿어지기 어렵다. 무위사는 신라 효공왕 9년(905) 이후 가지산문계통의 선승(禪僧) 선각대사 형미(迺微)가 주석(住錫)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서 동리산문 계통의 도선국사가 875년에 2창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위사는 형미가 주석했던 10세기 초 이전에 창건되어 있었고 당시의 사찰명이 무위갑사(無爲岬寺)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보 제13호로 지정된 무위사 극락전은 1956년에 해체보수하고 1974년에 벽화를 이전하고 다시 1983년에 해체·수리하였는데 이때 종도리 받침 장혀에서 선덕 5년이라는 묵서명(墨書銘)이 나와 이 건물이 1430년(세종 12)에 지어졌음이 밝혀졌다.





극락보전

극락보전 혹은 극락전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시며,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시는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하는 법당으로써, 미타삼부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토신앙 계통의 종파나 화엄종 등 사찰의 주불전이 될 때는 무량수전(無量壽殿), 수광전이라고도 하며, 주불전이 아닌 경우에는 미타전 또는 아미타전(阿彌陀殿)이라 한다.

무위사 극락보전은 다듬돌과 거친돌을 바른 층으로 쌓은 기단 위에 덩병주초를 놓고 배흘림을 한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는 3출목의 공포를 포작하고 대들보를 얹었으며, 양쪽에 파련대공을 놓아 중종보를 받치고 있다. 가구구조는 이중량 구조로 되었으나 건물측면을 보면 이중량으로 보이지 않고 두 고주 위에 중종보만이 올려져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공포는 주심포 형식이다. 기둥은 간살이가 넓어 호남지방 특유의 오래된 수법을 지니고 있다. 측면은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벽체의 면과 가구의 선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맞배지붕으로 된 주심포계 건물의 특징으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의 측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구조미를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구조형식은 수덕사 대웅전에 비할 만큼 아름답게 장식되어 비록 헛침차와 우미량은 없지만 두공 위에서 짜여진 살미와 침차 그리고 그 내부의 보를 받는 보아지, 또 마루대공의 파련화와 인자대공의 조식이 빼어나다.

건물 내부에는 기둥이 전혀 없는 널찍한 공간을 이루었고 건물 내에 고주가 없어 후불벽을 세우기 위하여 양측에 각재를 올려 세워 그 사이에 벽을 발라 벽화를 그렸다. 벽 앞에는 불단을 놓고 반자를 짜 감실 보개천장을 만들었다. 불단 위쪽에는 단집모양의 보개를 올리고 단 위에는 아미타 삼존불을 모셨는데 가운데 본존불의 눈은 활안(活眼)으로서 정면에서 보나 측면에서 보나 보는 이의 눈을 따라다닌다고 한다.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삼존불과 29점의 벽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불상 뒤에 아미타후불벽화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 28점은 보존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아미타후불벽화는 얼마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에서 국보 제313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아미타극락회도 장면을 그린 이 벽화는 앞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중앙의 본존불은 비교적 높은 연꽃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양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고 있으며 뒤로는 키모양의 광배가 표현되었다. 왼쪽에 서있는 관음보살은 머리칼이 어깨 위에 흘러내린 모습에 얇고 투명한 겹옷을 입고 있으며, 오른쪽의 지장보살은 오른손으로 석장을 쥐고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채색은 주로 녹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조선 성종 7년(1476)에 화원 대선사 해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벽화는 온화한 색채나 신체의 표현 등 고려시대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간결한 무늬나 본존불과 같은 크기의 기타 인물 표현 등 조선 초기 불화의 새로운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어 고려식 조선 초기 불화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벽화들에는 전설이 전하는데, 극락전이 완성되고 난 뒤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49일 동안 이 법당 안을 들여보지 말라고 당부한 뒤에 법당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49일째 되는 날, 절의 주지스님이 약속을 어기고 문에 구멍을 뚫고 몰래 들여다 보자, 마지막 그림인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고 있던 한 마리의 파랑새가 입에 붓을 물고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림 속 관음보살의 눈동자가 없다.



선각대사편광탑비



선각대사 편광탑비(보물 507호)는 선각대사 형미(迴微)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고려 정종 원년(946)에 건립되었다. 선각대사는 신라 말의 명승으로, 당나라에 건너가서 14년만에 돌아와 무위사에 8년간 머물렀다. 고려 태조 원년(918)에 54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고려 태조가 ‘선각’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탑이름을 ‘편광탑’이라 하였다. 이 비는 대사가 입적한 지 28년만에 세워진 것이다. 비는 비받침과 비몸돌, 머릿돌을 모두 갖춘 완전한 모습이다. 비받침은 몸은 거북이나, 머리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형상으로

사나워 보이며 사실성이 뚜렷하다. 중앙에 마련되어 비를 직접 받치고 있는 비좌에는 구름무늬와 둥근형태의 조각을 새겼다. 비몸에는 선각대사에 관한 기록과, 최언위가 비문을 짓고 유훈율이 해서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머릿돌은 밑면에 연꽃무늬를 새긴 3단의 받침이 있다. 중앙에는 비의 이름을 새겼던 네모진 공간이 있으나 마멸되어 글씨를 알아볼 수 없고, 그 주위로 구름속 용의 모습을 조각하였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상세계로 가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각 부의 조각수법이 같은 시대의 다른 석비에 비해 사실적이며, 조각예술로서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주 · 천엄사 벌거벗은 스님

『내가 오길 잘했지. 만약 그 나이 어린 사미승이 왔더라면 이 눈 속에 어떻게 했을까?』

한껏 허리를 굽히고 바빠 걷던 노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거센 눈보라가 스님의 얼굴을 때렸다.

떨렁거리던 주장자소리도 멈추고 사위는 쥐죽은듯이 고요했다. 다만 어둠 속에 눈발이 희끗희끗 날릴 뿐. 더욱이 황룡사로 가는 길은 아직 초저녁인데도 인적이 끊어졌다. 군데군데 인가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신라 애장왕이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숙부 언승이 섭정의 난을 일으킨 뒤 인심이 흉흉하고 밤이면 도적떼들이 횡행했기 때문이었다.

노스님은 「삼랑사 주지 스님이 자고 떠나라고 잡을 때 그곳에서 그냥 묵을 걸 잘못했다.」고 후회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님의 발길에 뭔가 몽클한 느낌으로 채이는 게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검은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스님이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는 「야옹 야옹」 음산한 소리로 울어댔다. 스님이 일어서자 고양이가 스님 뒤를 따라왔다. 스님은 주장자로 고양이를 쫓았으나 고양이는 달아나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스님은 고양이가 따라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거센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며 길이 험해지자 스님은 입 속으로 염불을 외우며 발목을 넘는 눈길을 걸었다. 고양이를 품속에 안은 채.

천엄사에 가까이 왔을 때였다. 바람결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품에 안은 고양이 소리가 싫어 귀를 기울였으나 아기 울음소리임에 틀림없었다.

『괴이한 일로구나. 이 눈 속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인가라곤 보이질 않았다. 노스님은 주장자에 몸을 의지하고 서서 다시 귀를 기울였으나 찬바람이 귓전을 때를 뿐이었다.

눈발 속에 천엄사 모습이 보였다. 스님이 막 천엄사 담을 끼고 돌아 대문 앞으로 지나려는데 절 처마 밑에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탈진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노스님은 고양이를 던지듯 내려놓고 다가갔다.

금방 해산을 했는지 흰눈을 붉게 물들인 채 실신한 여인이 아기의 탯줄을 쥐고 있었다. 노스님은 황급하게 아기의 탯줄을 끊고는 대문을 두들겼다. 그러나 거센 바람소리와 눈보라 때문인지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당황한 스님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팡팡 난폭스럽게 대문을 두들겼다. 그러던 스님은 갑자기 돌아서 아기를 안았다. 여인의 얇은 치마에 감긴 아이의 살은 얼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스님은 아기의 언 몸을 문지르며 염불을 외우고 때때로 대문을 두들겼다. 스님은 다시 여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려요..』

스님은 허리를 굽혀 여인을 흔들었으나 말은 커녕 신음소리도 없었다. 발가벗은 여인에게선 피비린내가 물씬 났다.

스님은 얼어붙은 여인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출가 사문이란 것도 잊은 채 오직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서 여인의 전신을 주물렀다.

노승은 또 여인의 코와 이마, 그리고 뺨을 문지르며 자신의 입김을 계속 불어 넣었다. 아기는 품속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스님은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여인의 옆에 눕혔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절에서 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은 스님은 피로를 느꼈다. 여인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스님은 더 빨리 염불을 외었다. 염불이 빨라지자 손놀림도 빨라졌다. 팔목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스님은 손을 눈 속에 묻었다 꺼냈다. 한결 시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긴 하품을 했다. 나른하게 졸음이 왔다. 순간 노승은 자기 본 위치로 돌아왔다. 여인의 풍만한 가슴을 의식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거지 여인이었다. 악취가 노승의 코를 찔렀다. 노승은 여인을 슬그머니 눈 위에 눕혀 놓고 일어서려 했다.

순간 스님의 머리에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스님은 거침없이 바지와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입혔다.

노스님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벌거벗은 스님은 주장자를 쥐고 일어서려다 다시 한번 여인을 내려다 봤다. 체내에 온기가 도는지 여인은 가느다랗게 숨을 몰아쉬며 신음소리를 냈다. 스님은 다시 여인의 몸을 비비기 시작했다. 여인의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여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스님은 여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비명과 함께 여인이 깨어났다. 그녀는 환히 웃고 있는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보살, 이제 정신이 드나?』

『스님께서 저를... 스님 아기는 어떻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아기는 잘 자고 있네. 헌데 어인 일로 이 산골까지...』

『아기 낳을 곳이 없어 천엄사를 찾아오다 그만 스님께 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네. 살아났으니 다행이야. 자 그럼 난 가 봐야겠네. 아이 추워..』

『스님, 옷을 입고 가셔야지요. 눈 속에 어찌하시려고 그냥 가세요?』

『아냐, 난 살 만큼 살았네. 아기나 잘 보살피게. 관세음보살...』

노스님은 벌거벗은 채 염불을 외우며 황룡사로 향했다. 살을 에는 눈보라 속을 걸어 황룡사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혼수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절 문을 두들기려고 팔을 들었으나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노스님은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안간힘을 쓰며 다시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천근이었다.

고양이가 쓰러진 스님 품속을 파고들었다. 스님은 고양이를 끌어안았다 놓더니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일주문을 돌아 헛간으로 찾아든 스님은 거적을 몸에 감고 고양이와 함께 누웠다. 고양이 체온이 노승의 몸을 녹였다.

어느덧 노승은 잠이 들었다.

날이 밝자 스님의 이야기는 서라벌 장안에 퍼졌다. 애장왕이 스님을 궁내로 맞아 국사로 봉하니 이 스님이 바로 정수국사. 훗날 사람들은 스님을 관음보살의 화현으로 믿었다.



전통사찰의 건축양식

우리는 사찰에 가면 건축물의 설명에서 팔작지붕이니, 다포식이니 하는 설명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성지순례를 한다면 우리네 전통건축물에 대한 설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사찰의 전통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붕양식

목조건물의 지붕은 단순히 빗물을 막고 햇빛을 피하게 하며 실내온도를 조절하여 기능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의장효과가 크게 의식되어 있다. 지붕의 양식은 크게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구분된다.

맞배지붕



전통건축의 지붕형식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주심포에서 많이 쓰인다. 정면에서는 거의 장방형에 가까운 지붕면이 보이며 측면에서는八字 모양의 지붕 테두리가 보인다. 맞배지붕도 다른 지붕형식에 비하면 매우 적지만 지붕선에 곡선이 들어가 있다. 용마루의 경우 중앙이 내려가고 양끝이 올라가도록 하는데 이는 용마루의 양끝이 처져 보이는 것을 보정해주려는 의도인 듯하다. 수덕사 대웅전과 무위사 극락전, 부석사 조사당, 개심사 대웅전, 선운사 대웅전 등이 있다.

우진각지붕



궁전, 건물에서의 정문과 문루들 등에서 볼 수 있다.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을 비교할 때 전자는 지붕면이 전후 2면이지만 후자는 전후좌우로 4면의 지붕면을 갖는다. 우진각지붕은 전후좌우 4면이 모두 경사를 갖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사다리꼴로 보이고 측면에서는 3각형이 된다. 가구는 팔작지붕과 비슷하지만 팔작지붕보다 높게 되어 있다. 해인사 장경판교, 서울 남대문

팔작지붕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의 상부를 잘라내고 맞배지붕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복합형의 지붕이다. 그렇게 올려 놓은 듯한 맞배지붕의 측면 삼각형을 합각면이라 한다. 가장 아름다운 구성미를 지닌 지붕으로 곡면이 특이하여 중심 건축물에 즐겨 사용되었다. 부석사 무량수전, 통도사 불이문 등이 있다.



공포양식

공포는 건물의 지붕을 떠받치는 부분에서 나무로 짜올려 지붕무게를 받게 한 구조를 말한다. (기둥과 지붕이 이어지는 자리에 놓인 역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는 지붕의 하중을 전달받은 보가 하중을 다시 기둥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그냥 기둥만 세우게 되면 집중적인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지붕에서 기둥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공포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런 구조적인 이유 외에 더 나아가 건물의 미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공포는 시대구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익공 양식 등으로 구분된다.

주심포 양식



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등이 있다.

주심포 양식은 고려초기에 신라와 송의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주두위에만 짜는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은 기둥위에 바로 주두를 놓았고 치목이 아름답게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을 하였다. 전통 목조 건축의 가구 형식 중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 소박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배흘림 기둥에 간단한 맞배지붕을 하고

다포 양식



있다. 서울 남대문, 봉정사 대웅전, 법주사 팔상전이 대표적인 다포식 건물이다.

두 가지 공포양식에서 주심포란 말 그대로 기둥 위에만(기둥의 중심에만) 공포를 두는 양식이며 다포는 기둥 위 뿐 만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역삼각형 모양의 공포를 두는 양식을 말한다. 즉 기둥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으면 다포로 구분하면 된다.

다포 양식은 고려후기에 기둥위에만 짜여 지지 않고 기둥사이 공간에도 창방위에 두꺼운 평방을 더 올려놓은 양식이다. 다포 양식은 교두형 첨자를 사용하며 배흘림이 심하지 않고 부재가 규격화 투박화 되는 것을 내부 반자를 두어 은폐하였다. 건물을 장중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포작도 여러층 겹쳐 짜고 팔작지붕으로 하고

익공 양식



조선초기에 주심포 양식을 간략화 한 것으로 기둥위에 새 날개처럼 첨차식장식을 장식효과와 주심도리를 높이는 양식이다. 장식 부재가 하나인 초익공 또는 익공과 부재를 두개 장식한 이익공이 있어 관아, 문묘, 서원, 지방의 상류 주택에 많이 사용되었다. 옥산서원 독락당, 강릉 오죽헌, 경복궁 향원정 등이 있다.

{ 화재 이연적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는 세심마을 }



세심마을은 경주와 포항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로 들어가는 동안 양옆으로
너른 들이 펼쳐지고, 눈앞에는 산들이 경계를 선다. 들판 가운데로 흐르는 냇물은
너른 들에 물을 댈 수 있을 만큼 수량이 넉넉하다. 풍수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라
도 안온한 공간이라고 느낄 만큼 편안한 곳이다. 물길을 따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양 잘 잡힌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다. 여기서부터 냇물은 계곡의 형태를 띠며, 계
곡을 따라 섬터들이 자리하고 있다. 길을 재촉해 조금 더 올라가면 옥산서원 입구
의 다리에 도착하게 된다.



회재선생은 세심마을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느낀 마을의 아름다움을 ‘사산오대’라고 정리했다. 사산오대란 옥산서원과 독락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네개의 봉우리와 자계천에 흠어져 있는 다섯 군데의 반석과 기암을 말하며, 독락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에는 각기 화개산(華蓋山), 자옥산(紫玉山), 무학산(舞鶴山), 도덕산(道德山)이 솟아있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자계천에는 관어대(觀魚臺), 영귀대(詠歸臺), 탁영대(濯纓臺), 징심대(澄心臺), 세심대(洗心臺)라 명명된 너럭바위들이 깔려있다. 세심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 탐방코스는 마을회관에서 세심대로 향하며 시작된다. 세심대(洗心臺)는 정조 때 지방초시를 치렀을 만큼 넓고, 경관이 수려하다. 계단처럼 이어지는 바위 한쪽에 퇴계 이황의 글씨 ‘세심대’가 새겨져 있다. 회재선생이 남긴 책을 통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퇴계 이황은 스스로 회재의 제자임을 자칭했고 그 인연으로 마을 곳곳에는 퇴계의 글씨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옆에 용추폭포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깊이가 먼주실 2타래를 풀어 넣었다는 전설도 있으나 지금은 돌과 토사로 다 매워져 있다.



옥산서원은 사적 제154호로 우리나라 도학의 종장이신 회재 선생을 추모 봉사하고 선비들이 학업을 연마하던 곳이다. 이 서원은 선생이 돌아가신 19년 후인 선조5년(1571년), 당시 경주부윤 이제민에 의하여 건립되었으며 이듬해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국왕의 사액을 받은 곳으로, 출입구·강당·사당 등이 일직선상에 놓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을 들어서면 먼저 강당 영역에 이르고, 무변루(無邊樓)라는 2층 누각과 강당인 구인당(求仁堂)이 서로 마주해 있으며, 두 건물 사이의 중정(中庭)에는 동재와 서재가 있다. 그리고 강당 뒤편에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사당이 자리잡고 있다. 옥산서원은 1백여 칸이 넘는 규모를 갖췄으며 보물 제525호로 지정된 〈삼국사기〉를 비롯해 많은 서적이 보관되어 있다. 서원으로 들어가는 정문의 이름은 역락문으로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유봉자원방래불역락호]’, 즉 벗이 멀리서 찾아주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그 뒤의 한 누각의 이름은 무변루이며, 역락문과 무변루 현판은 한석봉이 쓴 것이다. 누각 뒤편으로는 옥산서원 현판을 달고 있는 구인당이 위치해 있다. 구인당 정면에 걸린 옥산서원 편액은 추사 김정희가 안쪽에 걸린 옥산서원 편액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가 쓴 글씨다. 조선시대 명필들의 글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 바로 옥산서원이다.



옥산서원에서 나와 산책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독락당이 이어진다. 독락당의 구성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담장이자. 특히 솜방채 대문에서 개울가로 통하는 담장은 길이가 15m에 불과하지만 서로 바짝 붙어 서있기 때문에 한참 걸어 보인다. 곳곳에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기 위한 통로도 지극히 미로처럼 구성되어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친구가 선물했다는 주엽나무(천연기념물 115호) 주변도 담장을 둘러다.

독락당은 살림집으로 보기 드물게 보물(제 413호)로 지정돼 있다. 초익공 형식 솟을 함장동의 구조는 조선전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독락당의 전면은 홀수칸이 아닌 4칸이다. 동쪽은 팔작지붕이지만 서쪽은 맞배지붕이다. 동쪽 끝 칸의 마루는 원래 마루방이었다. 분합문을 달았던 흔적과 마루청판이 대청과는 다르고 지붕 또한 대청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마루방의 창문은 동쪽 담장과 북쪽 뒷마당으로 뚫려있다. 약쑥밭과 계곡을 바라보기 위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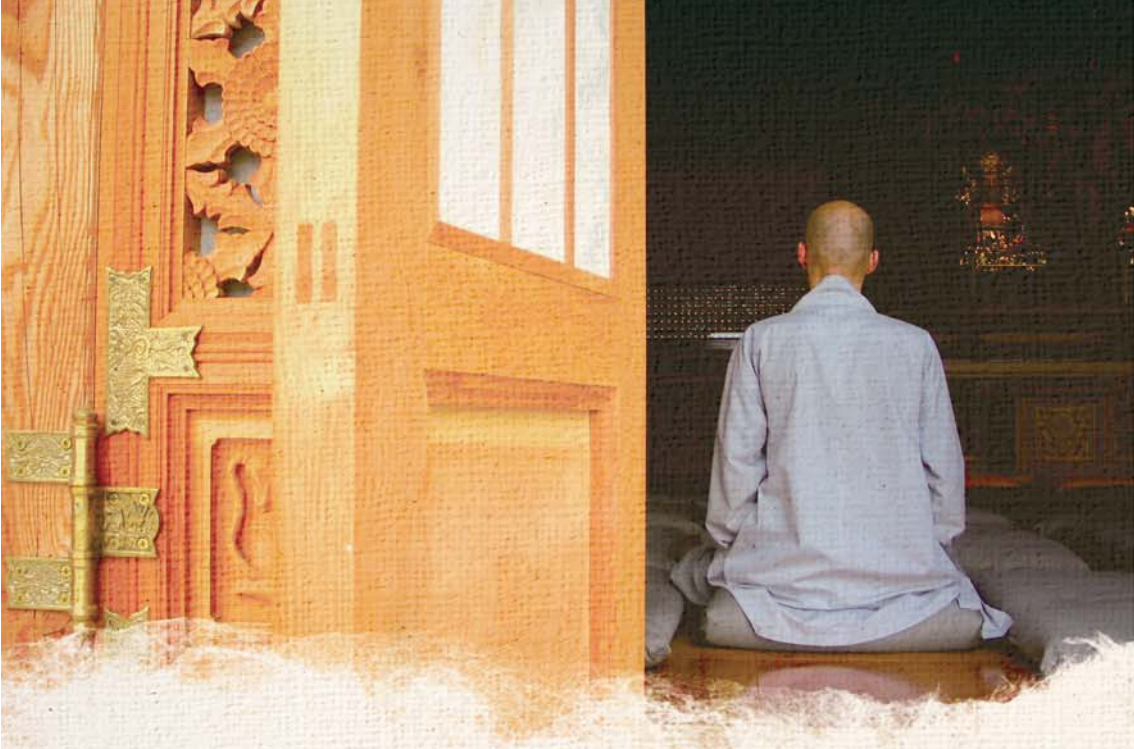
계정은 계곡면을 향하여 정면을 형성하고 있다. 계정에는 양진암이라는 2칸 방이 붙어있는데 이는 정혜사의 스님을 위한 회재의 배려이다. 계정이란 현판은 한석봉의 글씨이고, 양진암은 퇴계가 쓴 글이다. 고민과 좌절, 초월과 학문적 성취감등 대사상가의 숨결이 살아있는 은둔의 공간이 바로 독락당이다.

독락당과 이웃하던 정혜사는 신라 때에 창

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었으나, 1834년의 큰 화재로 폐찰이 되어 과수원과 논밭으로 바뀐 절터를 통일신라 때의 석탑 하나만이 지키고 있다. 높이 5.9m의 정혜사지13층 석탑(국보 제40호)은 불국사 다보탑(佛國寺多寶塔),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異形) 석탑의 걸작이다.

1층의 탑신(塔身·몸돌)과 옥개석(屋蓋石·지붕돌)은 여느 석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층부터는 일반적인 체감(遞減)의 비례를 무시하고 옥개석과 탑신이 급격히 줄어드는 탓에 마치 지붕 돌만 포개놓은 것 같다. 이처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면서도 정제된 조형미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급격히 줄어드는 2층 이상의 탑신을 보면 하늘로 솟는 듯한 상승감이 느껴진다. 또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통한옥에서의 숙박이 가능한 세심마을, 역사유적이 많아 천천히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생생한 역사공부가 될 것이다.





일타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기도인의 자세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불교의 기도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다.’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자주 듣기 까지 한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급한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또,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와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해탈과 관련이 있으니, 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하지 않는 기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 기도는 비는 것이다. ‘도와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이다. 어떤 사람이든 힘이 있고 자신이 있을 때는 신심(信心), 곧 자기 자신의 의지로써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나약해지고 자신이 없을 때는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한다. 곧 신앙(信仰)이 필요한 것이다.

기도는 신앙이다. 신심이 아니라 신앙인 것이다. 따라서 기도를 할 때는 매달려야 한다. 내 마음대로도 남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할 때는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복잡한 형식이나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

간절하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갖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소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잘 되게 하소서. 잘 되게 해주소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찌기 신라의 원효스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하면서,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 생각을 하지 말고, 주린 창자가 굶어져도 먹을 생각을 하지 말지이다.”라고 하셨다.

이것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밥 생각, 불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얼마 동안은 마음이 잘 모이지만, 조금 지나면 갖가지 잡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된다.

몸이 고단하다는 생각,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공연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기도를 망쳐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억지로 없애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 번뇌 망상의 속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회의를 생기고 잡념이 일어나는 고비를 만나면, 거들 소원을 곧게 세우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빠져들게 되고, 잠깐이라도 깊은 기도 삼매에 빠져들면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어 소원을 남김없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북 영천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50대 초반의 처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지금부터 수년 전, 그 처사는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끼며 굴신(屈伸)조차 할 수 없는 허릿병에 걸리고 말았다.

처사는 들것에 실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고,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다니며 침도 맞고 한약도 달여 먹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구니 스님이 된 처사의 여동생이 찾아왔고, 여동생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것을 청하였다.



“오라버니,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부르면 죽을병도 능히 고칩니다. 그까짓 허릿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누워서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이니, ‘노시는 입에 염불한다.’고 부지런히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얼마 동안 처사는 동생이 시키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외웠다. 그러나 깊은 믿음이 없었던 그는 열심히 외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영영 불구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염불 자체에 대한 회의에 빠져 버렸다.

‘관세음보살을 외운다고 어찌 허리 병이 나을까 보냐? 나도 참 바보지. 일은커녕 걷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이내 신세……. 아, 차라리 콧 죽어 버리자.’

그는 가족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일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것이 낫다. 먹고 죽어 버리게 농약 가져 오너라. 빨리 가져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족들을 향해 ‘농약 먹고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치자,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시 동생 비구니 스님을 청하였다.

“오라버니,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 보세요. 틀림 없이 허리가 나아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고쳐? 여러 소리 말고 농약이나 가져와! 콧 죽어 버리게.”

“그렇게 농약 먹고 발광하다 죽고 싶소?”

“그래, 이제 사는 것도 지겹다. 빨리 농약이나 가져오너라.”

헛간으로 뛰어간 동생 비구니는 농약 한 바가지를 폭 퍼 가지고 와서 오라버니의 입 앞에 갖다 대며 소리 쳤다.

“자, 입을 벌려요. 내가 부어 넣어 줄 테니까.”

“……”

“뭘 망설여요? ‘아’ 하라는데…….”

처사는 여동생의 당돌한 행동에 깜짝 놀라 입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농약을 먹지 않으려거든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을 부지런히 외우세요. 부지런히 외워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외우게 되면, 묘한 약이 생기기도 하고 용한 의사를 만나 병이 금방 낫게 될 것입니다.”

여동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처사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소리 내어 관세음보살을 찾기가 쑥스러워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하기를 7일째 되던 날 저녁, 처사는 문득 꿈을 꾸었다. 처사가 사는 동네에 의사 한 명과 세 명의 간호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악성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모두 예방주사를 맞

아야 한다.’며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처사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의사 앞으로 가자, 의사는 다른 사람은 거들떠볼 생각도 않고 처사를 끌어당겨 청진기로 진찰을 하는 것이었다.

“보통 예방주사로는 당신 병을 고칠 수가 없소, 저 침대 위에 누우시오.”

처사가 침대 위에 눕기 바쁘게 의사는 맥주병만 한 큰 주사기를 가져와서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허리에 짹 찌르는 것이었다.

“아야!”

처사는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고,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 자신이 벌떡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는 서서히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불편한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구제 불능의 허리 병이 완전히 나아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처사가 조금증과 무기력 속에 잠겼을 때 영영 기도를 그만두었다면 어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을 수 있었겠는가?

여동생 스님의 적절한 방편으로 처사는 관세음보살을 찾는 기도를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허리 병이 완쾌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을 잘 단속 하여야 한다. 오히려 잡생각이 일어날 때일수록 마음을 곧게 다져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나를 속일 불보살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요

긴하게 마음에 새겨라. 기도 성취의 비결이 ‘간절 절(切)’이 한 글자 속에 있음을!

물체의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소리가 크면 메아리도 크듯이, 내가 드리는 정성이 크면 클수록 불보살의 감응(感應)도 크게 다가오는 법이

다. ‘간절 切’이 한 그림자가 온몸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매에

빠져들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력을 크게 입게 된다.

부디 지극한 마음, 간절하

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

도하기를 당부 드린다.





역사 속의 여성열전

최근 드라마 '선덕여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선덕여왕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법왕사보에서는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許黃玉

허황옥

허황옥은 가야에 새로운 문화와 문물을 도입해 풍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든 이주 여성이자,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정도로 양성평등적인 문화를 일구었던 여성이다. 일연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저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인데,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금년 5월 본국에 있을 때 부왕과 모후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상제께서 가락국 왕 수로(首露)는 하늘이 내려 보내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가 새로 그 나라에 군림했으니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너는 여기서 우리와 작별하고 그에게로 가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를 건너 멀리 남해에 가서 찾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어 멀리 동해로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잘것없는 얼굴로 감히 용안(龍顏)을 뵈게 되었습니다.”

허황옥은 이렇게 『삼국유사』에 등장한다. 허황옥이 자기 자신을 수로왕에게 소개하는 기이편 ‘가락국기’조의 이 대목은 『삼국유사』를 통틀어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허황옥의 출자(出自) 문제, 다시 말해서 “허황옥이 정말 아유타국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다. 아유타국은 탐상편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서역(西域) 아유타국’으로 보다 분명히 표기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멀리 인도에 있는 ‘아유타’라는 나라에서 김해까지 배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 하는 데에서 논란이 있다.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 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허황옥은 김해김씨, 김해허씨의 시조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록된 역사에서 자신의 성을 물려준 여성은 허황옥이 유일하다. 이는 허황옥이라는 여성이 오늘날의 여성보다 더 평등하게 왕과 권력을 나누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지금도 김해에서는 허왕후를 허수로왕이라고 부른다.



善德女王

선덕여왕

선덕여왕(善德女王 · 재위 632~647년)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女帝)인 측천무후도 선덕여왕보다 반세기 후에야 비로소 등장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선덕여왕 즉위는 동양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은 신라 제27대 왕(재위 632~647)으로 성은 김씨, 이름은 덕만이다. 호는 성조황고이며, 시호는 선덕이다. 진평왕의 맏딸로 태어났으며, 진평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받들었다. 634년에 연호를 인평으로 고치고 분황사를 지었다. 638년에 고구려 군을 물리쳤고, 640년에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 642년에 백제에게 40여 성을 빼앗기게 되자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어 구원을 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642년부터 김유신으로 하여금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당나라에 원군을 청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647년에 엄종과 비담 등이 반역을 꾀했으나 곧 진압되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여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어질며 명민하였다고 한다. 그는 왕위에 있으면서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꾀하였고, 당나라의 문화와 불교를 들여왔으며, 첨성대와 황룡사 9층탑 등을 건립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召西奴

소서노

소서노(召西奴)는 비류를 시조로 하는 백제 건국 설화에서 나오는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이자 고구려 동명성왕 주몽의 두 번째 부인이다.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며,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庶孫)인 우태와 처음에 혼인하였다. 우태 사후, 동명성왕과 혼인하여 그를 도와 고구려 건국에 일조했다고 한다. 이후에 부여에 있던 동명성왕의 장자 유리명왕이 고구려에 올 때 주몽과 결별하고 비류와 온조 두 아들과 함께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했다고 전해진다. 소서노는 드라마 ‘주몽’에서 표현되었듯이, 우리 역사에서 두 나라를 건국한 여성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를 통해서 ‘백제 양국을 건설한 자’로 소서노를 평가했는데, 이는 백제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고구려의 건국에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고려 개국은 남편인 ‘주몽’을 통해서 백제의 개국은 아들인 ‘온조’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두 나라의 창업에 소서노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온조왕 13년에 ‘왕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이가 61세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에 소서노가 아들과 함께 졸본부여 곧 고구려를 떠나 한강유역으로 내려왔으며, 백제를 세운지 13년째 되던 해에 죽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저자 황경환 | 출판사 도서출판 풍경소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불경의 대부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한자로 번역한 다음 그 한자가 재번역된 것들이다. 따라서 여러 번 재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뒤틀린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일본에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100년 전 인도의 초기 경전을 자국말로 완역한 것과 달리 한국 불교에선 황경환 회장이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초기불전 연구원과 전재성 박사가 운영하는 빨리성전학회에서만 초기불전 번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화가 도교적 색채가 짙은 중국선종불교 내지는 대승불교로 일관해 온 것이 안타깝다.”면서 부처님 당시의 불교의

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타니파타> 558번째 계승에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고성제(苦聖諦)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는 것은 도성제(道聖諦)를 말합니다. 고오타마 붓다께서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저자는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통해 주옥같은 108경구를 내어 놓으며, 어떻게 하면 무명의 족쇄를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근거로 그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황경환 회장은 책에서 불교를 안다는 것은 고귀한 네가지 진실(四聖諦)을 안다는 것이요, 고귀한 진실 즉, 사성제를 안다는 것은 나라고 알고 있는 오온(五蘊 :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즉, 육체와 정신이 상호 의존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진실을 아는 자는 고통의 발생에 대한 원인의 진실을 알고, 고통의 발생에 대한 원인의 진실을 아는 자는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진실의 길을 알며,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진실의 길을 아는 자는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8가지도량(八正道)을 통해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황경환 회장. 평소엔 우리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 황경환 회장을 보면서 불자들이 어떻게 공부해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저자소개

지은이 황경환(黃京煥)은 울산 온산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윤리교육학과)을 수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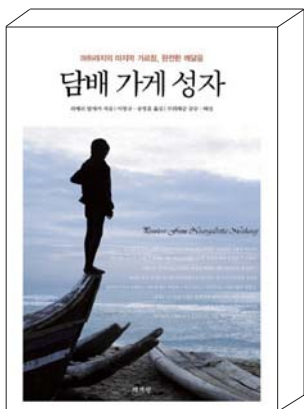
지난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과 인연하여 30여년간 이 단체의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이기도 하다.

특히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외교단체)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96년과 97년 국제 PTP 한국본부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다.

사)피플투피플한국본부 제13대 총재역임, 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과 연구위원 역임,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원,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 주진양유조선 대표이사, 주)경주 I.C.S 대표이사

저서 / 반야심경_ 김사철, 황경환 공저

연구논문_ 신라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



담배 가게 성자 - 마하라지의 마지막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

저자 라메쉬 발세카 | 역자 이명규, 송영훈 | 감수 무위해공 | 출판사 책세상

무용가 흥신자의 마지막 영적 스승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를 만나다!

라메쉬 발세카의 『담배 가게 성자』. 평생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장에서 담배를 팔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좁은 다락방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전달한, 20세기 인도의 성자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의 최후의 가르침을 담았다. 마하라지가 얻어낸 완전한 깨달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마하라지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험한 세상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가족의 삶을 위해 시장에서 담배 가게를 열었다. 아울러 담배 가게의 좁은 다락방에서 40여 년간 구도자들에게 가르침을 펼쳤다. 마하라지는 화려하지 않은 순박한 언어로 오직 참나인 절대성에 대해서만 가르쳤다. 특히 마하라지의 가르침은 2500여 년간 전해오면서 변질되어버린 불타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했다.

주제별로 나누어 총5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구도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문답 형식을 통해 절묘하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참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진리의 정점을 맛보게 된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해설을 덧붙였다. 부록을 통해서도 마하라지의 가르침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담았다. 양장.

저자소개

저자 라메쉬 발세카 (Ramesh Balsekar)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나 런던대학을 졸업한 후 인도국영은행에 들어가 은행장까지 지내다가 친구의 소개로 스승 마하라지를 만났다. 이후 마하라지가 입적할 때까지 스승의 곁에서 영어 통역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1982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진리모임을 시작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의식은 말한다 Consciousness Speaks : conversations with Ramesh S. Balsekar》, 《궁극적 이해 The Ultimate Understanding》 등의 책을 썼다.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Nisargadatta Maharaj)

1897년 인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그는 뭄바이에서 담배 가게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던 중 37세 때 스승인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를 만나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40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점차 세상에 알려져 그의 집에는 구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981년 입적할 때까지 담배 가게 2층의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감수 ? 해설 무위해공은 20여 년 동안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을 넘나들며 수행하던 중 1998년 12월 미얀마의 마하시센터에서 위파사나 명상을 통해 무아연기를 깨달았다. 그 후 10여 년 동안 해공명상센터를 운영하며 가르침을 펴고 있다. 《대자유로 가는 길 나는 없다》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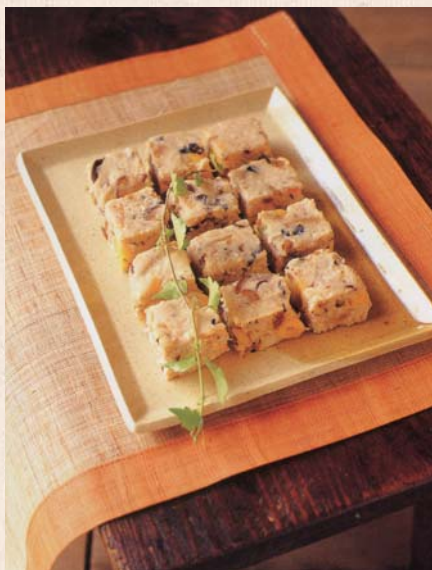
마는 '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라고 해서 산약이라 부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는 야생의 것이어야 약효가 훨씬 뛰어나다. 야생 참마와 재배한 참마를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재배한 것은 뿌리가 굵고 몽툰하지만, 야생의 것은 뿌리가 가늘고 길며 단단하다. 마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목병(몸이 마비되는 병)을 치료하는 약초라는 뜻으로 '천마'라고도 한다. 마의 주성분은 녹말과 당분이며 비타민B, B2, C, 사포닌 등도 들어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소화가 매우 잘된다는 것도 마의 장점. 끈적끈적한 점액질은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물질이며,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는 음식을 서너 배 빨리 소화되게 한다. 때문에 마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위가 약한 사람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다. 그밖에 장 속 세균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므로 만성장염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가래를 없애고 염증을 삭이며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다. 마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된장을 찍어 날로 먹는 것. 또 마를 갈아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며, 찌서 또는 쥔 것을 말려 가루 내어 먹기도 한다. 죽으로 끓이거나 마밥을 지어 먹어도 된다.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마 두부 찜

재료 마1/2개, 두부1/3모, 표고버섯 2장, 당근 30g, 은행 8알, 대추 4개, 잣 1큰술, 마가루 1/4컵, 소금·후춧가루·식용유 약간씩

1 마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간다. 마의 껍질을 벗길때 무쇠칼을 쓰면 색이 변하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칼을 써야 한다. 두부는 물기를 닦고 칼 등으로 으깨 체에 내린다.

2 불린 표고버섯과 당근은 채썰어 각각 기름 두른 팬에 소금간해 살짝 볶는다.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속껍질을 벗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서 채썬다.

3 그릇에 마 간 것, 으깬 두부, 볶은 표고버섯과 당근, 은행과 대추, 잣을 넣고 섞은 후 마가루를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4 반죽으로 반대기를 만든 후 김이 오른 찜통에 넣고 찌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낸다.



차조기 마 샐러드

재료 차조기(자소)10장, 마1/2개, 잣소스(배즙 1/2컵, 잣 3큰술, 소금약간)

1 차조기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채썰고, 마는 껍질을 벗겨 채썬다

2 강판에 간 배즙과 잣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소금을 넣고 간해 잣 소스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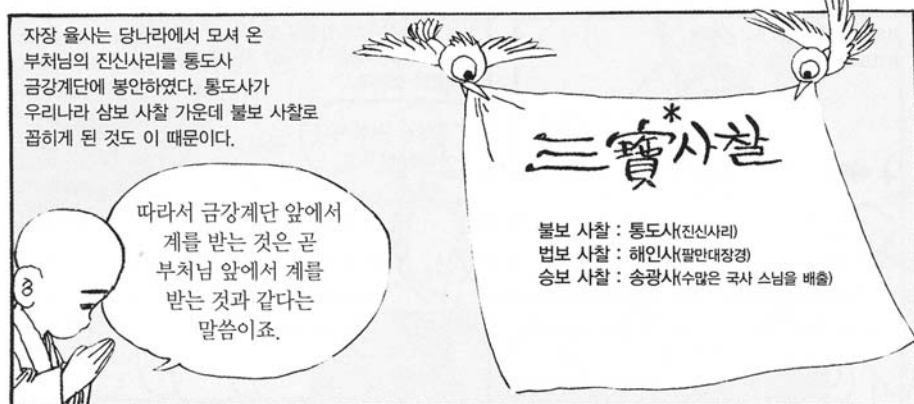
3 접시에 채썬 마를 담고, 차조기를 얹은 후 먹기 직전에 잣소스를 뿌려 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율사의 가장 큰 업적은 계단(戒壇)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일일 것이다. 계단이란
게를 받기 위해 법식에 따라 만들어진 단으로서,
그 위에 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 삼보(三寶): 불교에서 손꼽는 세 가지 보배. 즉 부처님, 불법, 승단.

※ 자료제공: 저자 김정빈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향초를 바치고 다기물을 올리는 마음

향불을 피우게 되면 향불을 피우고, 촛불을 붙이게 되면 촛불을 붙이고 다기물(茶器水)을 올리게 되면 다기물을 올리되 이것은 평범한 의식이니까 남이 하는 대로 의례한다고 해서는 안된다. 촛불은 제 몸을 태우면서 이 세상을 밝히고 향불은 제 몸을 태우면서 이 세상에 맑은 향기를 남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의 향(戒香)과 정의 향(定 香) 해의 향(慧香), 해탈의 향(解脫香), 해탈지견의 향(解脫知見香)으로 오분법신을 증득하여 사바세계에 맑은 법향을 공양한 상징으로 향을 피우고, 이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살라 재가 될지라도 결코 그 속에서 나는 빛으로 번뇌의 암흑가를 밝히겠다고 생각하며 촛불을 켜며, 이렇게 얻은 진리의 향수, 광명의 감로다를 부처님께 공양하되 다기속에 물이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때로는 농업용수가 되고 때로는 공업용수가 되고 때로는 우물물, 개울물, 바닷물, 호수가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천지를 유랑하다가 때로는 비가 되어 목마른 세계를 축이듯 우리도 6도 10계를 왕환(往還)하며 6도 10계 중생의 고통을 빼어주고 참된 낙을 심어주기를 기원하고 맹세하며 바쳐야 하는 것이다.



푸른 잎의 싱그러움 즐기기

무미건조한 공간을 싱그러운 푸른 빛으로 가득 채워보자. 꽃꽂이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 잎사귀, 풀, 나뭇가지, 열매 등은 아주 좋은 소재.

다채로운 모양의 잎사귀들은 단순한 모양의 꽃과 어울려 더 인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잎사귀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워 질감, 모양, 컬러를 잘 살리면 꽃 없이도 심플하고 세련된 장식 효과를 낼 수 있다. 가장 손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스틸글래스처럼 자연스런 곡선을 이루는 가느다랗고 긴 잎을 가진 소재류나 일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개운죽. 봄이면 볼 수 있는 새파란 보리, 삐죽삐죽 재미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엘레기아 등도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적당한 소재들이다.

◀ 잎사귀 모양이 고사리 잎처럼 생긴 네프로네페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분위기가 난다. 가름한 모양의 투명 꽃병에 물을 나지막이 붓고 네프로네페스를 한 잎씩 꽂았다. 같은 꽃병을 여러 개 준비해 나란히 놓으면 시각적인 효과가 더 강해진다. 물에 잠기는 부분의 잎은 훑어내야 오래도록 싱싱한 상태를 유지한다.

▼ 줄기가 직선에 가까운 개운죽은 나란히 몇 줄기만 꽂아도 멋진 장식의 느낌이 든다. 줄기가 쏙 들어갈 만한 길쭉한 꽃병에 한 줄기씩 세우면 모던한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 푸른 소재만을 꽂고 싶을 때는 선의 흐름을 먼저 보자. 동양란의 휘어진 끝부분을 닮은 스틸글래스처럼 선이 간결한 자연 소재를 사용하면 꽃보다도 더 강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부처님의 삼대선언

삼대선언(三大宣言)

3 귀의 선언(歸依宣言)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침을 이룬 후 45년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많은 박해 세력의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도 동북부의 마가타국, 아반티국, 카시국, 코살라국, 밋지국, 왕사성, 사위국, 바라나국 등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수천 리 길을 여러 차례 왕복하면서 혼란했던 사회,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비와 평등, 평화의 대해탈에 이르는 영원한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이토록 간절한 가르침에 왕이나 귀족, 학자, 부호, 이교도, 농민, 상인, 심지어 노예에 이르기까지, 계급, 신분에 관계없이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구름같이 모여드니, 당시 사회는 정신적으로 대변혁에 맞먹는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부처님 한 번 만나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그가 가는 길에 등불 한 번 밝히고 부처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는 수기(授記)를 받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부처님 나이 80세, 쇠진한 몸으로 라자그리하를 떠나 갠지스 강을 건너 북으로 바이샬리에 이르렀을 때 장마철이라 병을 얻게 되어 고통스러워 했다. 우기(雨期)가 그친 후 북으로 가는 도중 마지막 순타(純陀)의 공양을 드시고 병을 더 얻게 된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면서 쿠시나가에 도착하였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여,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여 눕고 싶다. 저 사라수 아래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아 다오. 나는 오늘 여기서 열반에 들겠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울고 있는 아난다를 불렀다.

“울지 마라 아난다여,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그날 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에 가까이 있는 말라죽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숲으로 수없이 모여들었다.

의지할 곳을 잃게 되는 제자들과 그들 신도에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 自歸依 法歸依).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비구들이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고, 자기를 의지해 머무르며, 법을 피난처로 삼고, 법에 의지해 머무르되,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은 귀의처를 잃고 우왕좌왕 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의지할 곳을 분명히 유훈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사후 제자들의 움직임을 요지부동하게 하기 위하여 안주할 곳을 분명히 밝혀 준 귀의 선언이다.

이 귀의 선언은 삼보귀의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불교인의 기반(基般)을 튼튼히 자

리하게 하였고 앞으로도 불성을 간직한 인간의 위대한 깨침이 이 귀의처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맺는 말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인간의 고뇌를 보고 길 위에서 깨침을 얻어 길 위에서 그 깨침을 전하다가 길 위서 세상을 떠나셨다.

길은 끝없이 가는 것이요 움직임이다. 불교의 길은 자기 발견과 함께 중생 구제를 위하여 부단히 움직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

불교인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큰 안목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21세기는 지구촌의 세계화 시대이다. 이 세계화 시대에 불교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이다.

먼저, 인간은 위대한 대해탈의 불성적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생로병사의 근본 해결을 자각토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둘째, 동서고금 인류 사회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평화가 강자의 전유물이 아닌, 정신문화적 차원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훼손되고 파괴되어 가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일체 만물이 하나의 생명체인 법신(法身)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 자연은 나, 나는 자연이란 불이법(不二法)을 밝혀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알려 주어야 한다.

넷째, 60억 세계 인구가 같은 공동체로 살면서 크게는 국가와 국가, 작게는 개인과 개인이 언제나 대립과 불신 속에서 다투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길을 밝혀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인류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물질적 어려움은 크고 작은 차이일 뿐 인간의 욕심이 상존하고 지구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언제나 계속되기 마련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한성을 지닌 정신문화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그 해결 방법을 불교는 답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부처님의 '삼대 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깨침의 소리인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인연으로 생멸한다는 연기 선언, 진리를 전함에 있어 자비심(慈悲心)과 포용력을 갖고 중생 구제를 위하여 끝없는 포교인의 희생을 강조한 전도 선언, 스스로의 지혜에 등불을 밝혀 영원한 진리에 안주하라는 귀의 선언, 이 삼대 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해답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서를 막론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 종교 문화에 감염되어 우리 안에 간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해탈이란 자아 완성(自我完成)과 중생을 구제(救濟)하는 자유로운 신행(新行) 활동의 큰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오늘의 현대인들, 특히 구제 중생의 큰 서원을 세운 지성인들은 부처님의 간곡한 이 선언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문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주역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자 | 宣晉圭 신진규

1934년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동 대학원 수학. 국립창원대학교(환경공학)대학원 졸업.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회장단 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상임포교사, 대한불교청년회장, 봉화산 정토원 개설, 88올림픽 10만 유등 기획 홍보실장,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원장,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회장, 경상남도 도의원,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회장, 한국불교문인협회 고문

- 저 서 : 『불교 포교론』, 『청소년 환경윤리관 확립의 연구』
- 수 상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조계종 종정), 청소년 지도자 표창(문화관광부장관), 전국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수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대통령) 수훈

생활속의 세금상식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1. 개요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1) 취득세

-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 매 *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 ()는 주택의 유상거래분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임, 즉 실질세율 1%임.

(2) 등록세

- ☞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 ☞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 매 *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

* ()는 주택의 유상거래분에 대한 등록세 50% 경감임, 즉 실질세율 1%임.

(3) 기타 : 인지세 및 부동산채권매입비용 등의 기타 제반 경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및 기타사항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취득)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 ☞ 이와 같이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이때 재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 부동산의 취득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자금출처 및 차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의 경우가 다양하므로 반드시 세무상담과 동반하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사 장영일
(053-584-2345)

계명문화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2006~2009 경북도청,경북교육청 결산 감사위원

법왕사 소식



▪ 중앙절 합동 천도제 봉행

지난 10월 26일(음력 9월 9일) 양이 두 번 겹친다는 중앙절을 맞이하여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였습니다. 추석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례를 지내지 못한 영가와 기일을 모르는 조상들의 제사, 그리고 평생위패를 봉안한 영가들과 따로 차례를 신청한 영가에 대해 합동 차례를 올렸습니다.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백고좌 회향 보살계 수계 대법회

지난 10월 30일 백고좌 법회의 회향을 기념하여 해인사 율주이신 종진큰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 대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이번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는 운불런 거사님 586명을 포함하여 700여명의 많은 신도님들이 보살계를 수지 받았습니다. 수계는 단순히 계cepts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나 자신과의 지계 약속이며, 그 약속을 실천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보살계는 받으신 신도님들은 탐진치를 소멸하고 성불에 이르겠다는 서원을 넘어 고통 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보살의 의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개산대제 백고좌 대법회 회향

법왕사가 창건된지 20년을 맞이하는 개산대제를 기념하는 백고좌대법회가 지난 10월 31일 불심도문큰스님을 모시고 100일간의 긴대장정을 회향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이번 백고좌 대법회에도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참진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성인의 나이에 들어서는 법왕사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는 부처님 도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법왕사 성지순례 대법회 봉행

지난 10월 20일 가을의 아름다움을 숨겼다 하는 내장산의 내장사와 많은 스님들이 수행정진을 하고 있는 조계종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 대법회가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봉행되었습니다. 단풍속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또한 우리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 노천산신단 산신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가정의 안녕과 무고를 기원한 산신기도가 지난 11월 2일(음9.15) 노천산신단에서 산신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신 사부대중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이 기도 공덕이 도량의 평안과 불자님 모두에게 가피가 되어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발원합니다.



▪ 백고좌 법회 회향 순례 법회

지난 11월 8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법주사와 김천 직지사를 참배하는 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법주사에서 신비로운 도솔천, 미륵세계를 표현한 비천상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많은 성보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 2010학년도 수능입시 백일기도 회향

올해는 신종플루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지난 8월 5일 수능입시 백일기도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12일 백일간의 기도를 회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함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수험생들의 아무런 장애없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능시험이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한 많은 수능 수험생들에게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법왕사 전시관으로 구경오세요.



법왕사 불교 종합 복지관 대웅전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종합 복지관 건립도량 법왕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선남자 선여인의 지혜의 빛을 밝히고 수행의 인연 지어나가는 불사에 힘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 원력에 힘입어 세계최대불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이제 드디어 180평 법당에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불사에 신심있는 불자님들의 지극한 정성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참하는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피입어 자비심과 보리심을 구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펴고 불법의 기틀을 다지는 대웅전 삼존불조성 및 단청불사에 수희동참 하시어 무량한 복덕인연 지으시길 부처님전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9년 11월 대한불교 조계종 주지 實相 합장



법왕사 게시판

삼존불봉안하신분

이원석 신응학 김상윤 이자비심 황현식 임인한
임상호

범종불사 동참하신분

류근화 류성철 류동훈 김소식 이태호 류주연

평생위패봉안

卍배존식 卍배준부 卍김신학 卍이예조 卍김일태
卍김삼태 卍이대원 卍이양만
이일호복위-조모유인영가

원불봉안 하신분

2990/박희환(관세음보살) 2991/노경정(지장보살)
2992/김동천(문수보살)
2993 2994 2995 2996/남옥연(지장보살4佛)
2997/卍진은지(아미타불)

지장탱화 동참하신분

임종성 남옥연 임현숙 임완택 정장숙 김승주
임현수 김민진 박승규 임현자

원불 완납하신분

2955/신경학(아미타불) 2965/김준식(대일여래불) 2975/추준호(관세음보살)
2992/김동천/문수보살 2997/卍진은지(아미타불)

왕생극락 하옵소서

- 정덕인법우님의 卍엄부 영일 후인 정동필 영가 막제가 9월 30일 있었습니다.
- 현철수거사님의 卍동생 연주후인 현대수 영가 기제사가 9월 30일 있었습니다.
- 박소연보살님의 卍엄부 순천후인 박정석 영가 기제사가 10월 4일 있었습니다.
- 이상백법우님의 卍엄부 전주후인 이호택영가 막제가 10월 6일 있었습니다.
- 이민수보살님의 卍엄부 영천후인 이명규 영가 기제사가 10월 9일 있었습니다.
- 정연학거사님의 卍자모 경주유인 김복술영가 초제가 10월 11일 있었습니다.
- 이상귀거사님의 卍동생 성산후인 이유상 영가 기제사가 10월 12일 있었습니다.
- 차경수거사님의 卍엄부 연안후인 차준홍 영가 막제가 10월 13일 있었습니다.
- 이정윤법우님의 卍엄부 경주후인 이대우 영가 기제사가 10월 13일 있었습니다.
- 하권거사님의 卍엄부 김해후인 김해웅 영가 막제가 10월 14일 있었습니다.
- 오현준법우님의 卍자모 김해유인 김지실 영가 초제가 10월 16일 있었습니다.
- 전용철거사님의 卍엄부 정선후인 전수성 영가 막제가 10월 23일 있었습니다.
- 영숙보살님의 卍자모 김녕유인 김정자 영가 막제가 10월 31일 있었습니다.
- 장우성거사님의 卍엄부 인동후인 장학송 영가 초제가 10월 31일 있었습니다.
- 김보미법우님의 卍동생 김해후인 김기득 영가 100일제가 11월 6일 있었습니다.

알림 - 축하드립니다

- 주호영의원이 특임장관에 취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보미양 전국체전 수영 단체금메달, 개인은메달(한국신기록 갱신)
- 9월 26일 우담바라합창단 반주자 박수진 결혼식이 계산성당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0일 신두환거사님 장남 신재동 결혼식이 부산 해운대 벅스코웨딩 1층 로얄홀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7일 김성태거사님 차녀 김선영 결혼식이 제천 하나웨딩프라자 1층 에메랄드홀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5일 김임태거사님 장녀 김기영 결혼식이 서울 aT센터 예식홀 5층 크리스탈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25일 송옥순보살님 차남 장재용 결혼식이 거창 별궁예식장 2층 궁실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사비 도움주신분**
경원스님 운성스님 현정스님
- **사보 구독 하신 분**
주경희(최가혜어) 최현정 권혁진 류영훈 조정호
정근순 이영주 김호권
- **사보 도움 주신 분**
거사림회(300부) 정안식(300부) 남옥연(250부)
백상현(200부) 보리수(100부)
- **떡공양 주신 분**
이영미 김진균 강석윤 한원수 사공순옥 박종성
전현진 백수영
- **대중공양 주신 분**
신현수 신승훈 나호국 이세정 ㄸ장학송 ㄸ김지은
이승민 이석규 김동천 권수진 이진주 김아림 김달호
심혜정 장새롬 김병희 임종성 남옥연 정연직 정영미
김정미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홍대환 서정우 정민수
- **조경공사(나무) 보시하신분**
이정화 차명희 박상일 이승민 김동현 풍경소리
- **벽돌 보시하신분**
류운만 심보현
- **인등 접수하신분**
정시후 정지은 신현호 정춘화 길지현 박도진
- **복지관 물품 주신분**
진귀스님(108나한도) 기후스님(스님작사·CD)
허선희(불교작품·12점) 권오경(단주200개) 이태희(수석)
- **백고좌법회 회향 도움주신분**
거사림회 권혁진 류영훈 정영미 류명숙 조영관
이선자 정영선 감로행 김호연 전재술 보리자 실상화
김명옥 정영미 권혁진 류영훈 박재선 이임숙
유명륜행 정시영 이지송 김옥숙
김영주 보광월 백상현 최미화 김정숙 ㄸ장학송
- **백고좌법회 회향 화환주신분**
거사림회장 사공관세무사 정광춘
- **산신기도공양물 주신분**
이승민 하경용 노수정

10월 자료 정정합니다.

비로자나불완반
정재술(오) → 전재술(정)

10월 CMS접수 하신 분

- 초하루, 인등
이영희(5만원)
- 초하루, 축원
정연이(4만원) 이범우(2만원) 이선미(2만원) 송애
자(2만원) 전태일(4만원) 이태현(2만원) 진영덕(2
만원) 나형진(2만원) 김영선(2만원)
- 인등
황국희(2만원) 황경란(1만5천원) 성상현(2만원)
김숙정(2만원) 성상현(2만원) 장옥주(1만원)
강춘희(2만원) 서금자(3만원) 류윤형(1만원)
전재호(2만원) 이경숙(1만원) 이숙희(3만원)
김명선(2만원) 신정옥(4만5천원) 정순희(2만원)
최유자(3만원) 정분쇠(5천원) 김경임(2만5천원)
전수진(1만원) 노수남(3만원) 홍경숙(1만원)
임석기(1만원) 최인겸(1만원) 김명숙(5만원)
- 원불
권창훈(1만원) 이갑선(1만원) 최상호(2만원)
송화중(3만원) 옥선혜(3만원) 김순희(2만원)
주정남(2만원) 강승구(4만원)
- 한평불사
조병화(10만원) 김의환(2만원) 전복량(2만원)
임희경(2만원) 우영자(2만원) 오형호(3만원)
서필희(1만원)
- 108석등
문영자(2만원) 이정연(2만원) 사공순옥(5만원)
조영자(6만원) 김봉용(5만원) 김명술(3만원)
이창형(3만원) 윤경진(3만원) 심명숙(5만원)
이미경(10만원) 조규인(3만원) 현미숙(2만원)
박종길(3만원)
- 일년기도
김종현(3만원) 이동선(3만원)
- 일년등
채지훈(2만원)
- 탱화불상
김주영(3만원)
-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 기타
최은상(3만원) 김현주(5만원) 이관수(10만원)
주석순(5천원) 김재현(1만원) 이종량(5만원)
정영석(5만원) 김재현(1만원) 이영희(5만원)
권수정(2만원) 조경희(10만원)

법왕사 거사림 부부모임 신입회원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행하는 법왕사 거사림 부부모임에서는 불교에 관심있는 초발심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관심은 있으나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분, 가족간에 화목과 화합을 바라는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법왕사 거사림 부부모임에 함께 하시면 원하는바 모든 일들이 성취 될 것입니다.

열린 불교 열린 세상을 추구하는 법왕사 거사림 부부법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권합니다.

거사림회장 정안식

- 법회안내 :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법왕사 신축법당 3층

본원스님 동양학 강의

우주 삼라만상의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치를 음과 양의 두 부호로 표시한 학문인 주역, 사서삼경중 '시경', '서경'과 더불어 삼경의 하나인 주역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경전입니다. 음양오행과 길흉화복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울수 있는 이번 강의에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바랍니다.

개강: 2009년 11월 21일 오후 3시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과과정: 3개월 (13주 과정)

문의: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망허(영법)스님 불화방 개강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정수인 불화(탱화)를 직접 그리며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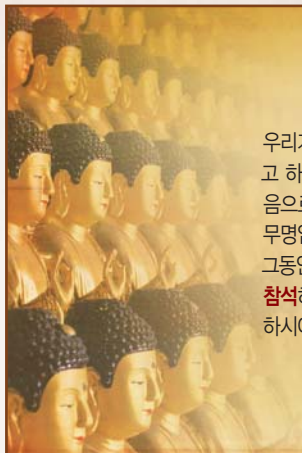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술이기 이전에 불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예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 강: 2009년 11월 6일 오전 10시

강의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문의: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점안(원불봉안)법회 안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따르겠다는 신심은 원력을 가지고 하고 그 원력으로 조성되는 부처님을 원불이라 합니다. 불자님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아무리 삼악도에 빠져있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무명업장은 소멸될 것이며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원불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모두 **빠짐없이 점안(원불봉안)법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원불을 모시지 못한 신도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무명업장을 소멸하여,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8일 오전 10시
문의: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기도안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한량없는 여래의 대비신력과 위신력을 머금은 대다라니이기에 그 신통묘용은 말로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대다라니는 뭇 중생들의 안락함을 얻게 하기 위해, 긴 수명을 얻게 하기 위해, 풍요로움을 얻게 하기 위해, 모든 그릇된 행위로 지은 중죄를 녹여 내리기 위해, 모든 장애와 곤란을 떠나기 위해, 무구 청정한 공덕을 늘리기 위해, 모든 선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두려움을 먼저 여의기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모두 속히 만족시키기 위해 설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신도님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소망하는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기도를 병행하오니 많은 신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주위 분들에게도 권하여 함께 부처님의 품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지스님 집전 / 일시: 매주 토요일 7시 30분



산신기도 인등집수 안내

청자도자기로 만든 인등이
24시간 불을 밝혀 드립니다.

[가족당 · 사업체당] 월회비 : 3만원



농협 702010-51-106490(법왕사)
대구는행 047-05-003698-6(법왕사)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우담바라 합창단**(목요일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 대구·경북 불교음악인협회 회장
- **사물놀이반**(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법일 박성경 선생님
환경 문화 예술단 회장
- **꽃꽂이회**(금요일 오후 2시)
임상덕 선생님
- 민플라워 강사(경력 20년)
- 법왕사 꽃꽂이회 지도 선생님
- **불화반**(매주 금요일 10시)
만허(영범)스님 - 세심사 주지
- **전통현대무용반**
김지연 선생님 - 이상화 무용단 단장
- **요리반**
황미선 선생님
- 수성케이블방송, 푸른방송, TCN케이
블방송
“황미선의 행복한 밥상” 진행자
- **노래교실** ● **에어로빅**
장인환 선생님 현미숙 선생님
- **서예교실** ● **요가교실**
류영희 선생님 태광스님
- **동양학강의**(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본원스님 - 13주 강좌

각 재일별 기도 내용

기도명	일 자	기도장소
신중기도	음력 1~3일	신축법당 3층
원불기도	음력 8 일	본당 1층 삼천불전
신장재일	음력 10일	3층
인등기도	음력 15일	3층
산신기도	음력 16일	야외산신각 오후 3시
지장재일	음력 18일	3층
관음재일	음력 24일	3층
다라니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 (2시간)	3층
거사림법회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3층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
세계불교 최대의 도심 포교 도량

법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회주: 정무 큰스님, 주지: 실상 스님

국내 최고의 명쾌한 큰스님들의 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2009 07-94로 인가를 받은 법왕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교육전문기관입니다.



수시모집

오전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주 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야 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금강경 강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입학금: 30,000원 (입학금 + 교재비)

수강료	1년 수료 과정	2년 졸업 과정
매월 10,000원	불교기초교리(조계종 교재), 예불문, 반야심경, 찬불가, 참선법, 천수경, 금강경, 큰스님 특강 등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기신론 등

※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 가능 합니다. 입교를 서두르세요.

※ 부처님 법을 배워 참된 불자가 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왕사

Tel. (053)766-3747 Fax. (053)767-6095 홈페이지. www.bubwangsa.or.kr

개창 20주년 기념

정무큰스님(조계종대종사) 초청대법회 및 산사음악회

법왕사가 창건된지 20년을 기념하여 조계종 대종사이신 정무큰스님 초청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합니다. 법왕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씩 산사음악회를 열어 많은 사부대중들의 흥겨운 법석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산빛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정무큰스님 초청대법회 및 산사음악회에 많이들 참석하시어 불법과 불음에 젖어 무량한 가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9년 11월 21일 오후 6시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주관: 법왕불교대학 총동문회
후원: 각 신행단체, 윤불련, 불교연합창단, 법왕풍물예술단